

초록번호 24-1

제 목	국 문	국가경제침체가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 문	Effect of economic depression on psychosocial distress of industrial worker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차봉석, 고상백, 왕승준, 장세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직업의학연구소		
	영 문	Bong-Suk Cha, Sang-Baek Koh, Seung-Jun Wang, Sei-Jin Chang <i>Dept. Preventive Medicine and I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i>		
분 야	환경	발 표 자	왕승준	
발표 형식	구 연	발표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국가경제침체가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직업적 긴장수준)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직업적 특성이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강원도 W시 및 H군 지역에 있는 50인 이상의 보건관리대행 사업자 근로자 중 1995년에 1차 조사한 근로자 347명을 대상으로 국가경제침체 이후인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8월 20일 까지 전과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2차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당시 경영난으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에 종사한 근로자 181명은 추적 불가능하여 193명 만이 설문조사가 가능했고 이 중 다른 사업장으로 이적한 41명을 제외하여 결국 총 1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자료수집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기입식으로 하였으며 조사변수로 독립변수에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 사회적지지 등을, 종속변수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했다. 분석방법에 있어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 변량분석으로 짝비교 t-검정을 실시하였고 혼란변수를 통제한 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분화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직업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비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고 다시 직업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를 이분화하여 직업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를 조합한 뒤 4가지 조합형태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비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p>				

3.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연령은 30대 이하가 70%를 차지했으며 월평균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29.6%, 150만원 이상이 38.2%이었다. 국가경제침체 전과 후의 스트레스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했는데 Karasek이 제시한 모델에 따라서 직업적 특성을 직업성 긴장 수준을 바탕으로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저긴장 집단을 제외한 수동적 집단, 능동적 집단, 고긴장 집단에서 국가경제침체 이후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고긴장 집단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했다. 성, 연령, 경제상태 등의 혼란변수를 통제한 후 직업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단일변량분석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 직업적 특성과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고긴장 집단에 있어서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가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에 대하여 가장 높은 비차비를 보였다.

4. 고찰

단일변량분석에서 국가경제침체 이후로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한 변수로는 연령과 직업적 특성이었고 특히 20대이하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적응력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적 특성의 경우, 직무요구도가 높고 직무자율성이 낮은 고긴장 집단에게서 유의한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의 Karasek의 연구 모델을 검증했던 연구결과들과 비슷하다.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근로자들이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근로자들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비차비가 높아 사회적 지지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직업적 특성의 영향에 대하여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건강과 사회문화적 요소의 관련성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며, 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축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일부지역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이며, 2차 조사시에 이미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나 직업불안정의 효과가 실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 연구의 목적이 국가경제침체 전후의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리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